

새로운 공동체를 향하여

DOI <https://doi.org/10.30525/978-9934-26-700-0-4>

정준곤, 교수

유라시아재단, 동경, 일본

Email: chung@eurasia.or.jp

국문초록. 본 논문은 21세기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와 그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사회 모델로서 “새로운 공동체(new community)”의 형성 가능성을 이론적·철학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 국제질서는 기술적 연결성과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심화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국가 중심 체제를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복잡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국가 체제는 경계(boundary)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고 자원을 배분하며 권력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배타성과 분질성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 이러한 구조는 기후 위기, 감염병 확산, 난민 문제, 디지털 격차 등 초국가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제한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국가 중심 질서의 한계를 단순한 제도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조직 원리 자체의 문제로 확장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인간 사회의 발전을 “소유(Possession)”와 “관계(Relationship)”라는 이중 구조로 해석한다. 소유 중심 구조는 세계를 대상화하고 통제 가능한 자원으로 인식하는 방식에 기반하며, 이는 근대 자본주의와 산업 사회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핵심 원리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무한한 축적 논리, 자원 불균형 심화, 사회적 신뢰 약화, 생태 위기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내포한다.

반면 관계 중심 구조는 인간과 세계를 상호의존적 관계망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 공동체는 고정된 경계 내의 집합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며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동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계 중심 사고는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산과 정보 기반 경제의 발전과 결합되며 현실적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다. 즉 현대 사회는 소유 중심 구조에서 관계 중심 구조로 점진적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위치해 있다.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본 연구는 유라시아 공간을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다. 유라시아는 다양한 언어, 종교, 문화가 중첩된 초대형 문명 공간으로, 단일한 동질성보다 복합성과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유라시아는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구조적 공간으로 이해된다.

또한 본 논문은 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 Amy Chua의 다양성 이론, Edward Glaeser의 도시 이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공동체의 이론적 기반을 확장한다. 홉스는 국가를 질서 유지 장치로 보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의 통제 능력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Chua는 다양성과 관용이 복합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며, Glaeser는 개방성과 밀집성이 혁신을 촉진한다고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체는 확장성, 개방성, 유연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원리로 구성된다. 확장성은 경계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능력, 개방성은 다양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 유연성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원리들은 상호 결합하여 공동체를 고정된 제도 구조가 아닌 동적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전환시킨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공동체는 국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포함하면서 그 위에서 작동하는 상위 수준의 관계망으로 정의된다. 이는 단일한 질서가 아니라 다층적 공존 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상호의존성을 반영하는 구조적 전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계 중심의 공동체 모델이 미래 글로벌 거버넌스와 사회 통합의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주제어: 새로운 공동체, 유라시아 공동체, 국가 중심 질서, 글로벌 거버넌스, 네트워크 사회, 관계 중심 사회, 소유와 관계, 초국가적 협력, 다양성과 관용, 개방성, 확장성, 유연성, 구조적 전환, 국제질서 변화.

TOWARDS A NEW COMMUNITY: ITS NECESSITY AND MEANING

DOI <https://doi.org/10.30525/978-9934-26-700-0-4>

Chung Junkon,

Professor, Secretary General of Eurasia Foundation,

The Eurasia Foundation, Japan

Email: chung@eurasia.or.jp

Annotation. This article analyses the structural crisis faced by the global society in the 21st century and explores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an alternative social model – a “new community” – from a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perspective.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order, despite its high level of technological connectivity and economic interdependence, still operates on the basis of a state-centric system. This structure demonstrates fundamental limitations in addressing complex global problems. In particular, the state system, being based on the principle of boundaries, inevitably produces processes of exclusion, division, and distribution of resources through the distinction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leading to institutional fragmentation and structural asymmetry. This logic limits the effectiveness of responses to transnational challenges, including the climate crisis,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migration flows, and the digital divide.

Based on this problematic, the work analyses not only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the state-centric order but also the deeper foundations of the organization of human society. In this regard, societal development is interpreted through the dual structure of “possession” and “relationship”. The possession model is based on an object-oriented perception of the world, within which reality is viewed as a collection of resources subject to control and accumulation. This approach played a key role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t and industrial systems. However, it also generates structural imbalances, including the concentration of resources, the decline of social trust, and the exacerbation of the environmental crisis.

In contrast, the relational model views society as a network of interdependent connections, in which social reality is formed through the interaction of multiple actors. In this perspective, community is understood not as a fixed structure, but as a dynamic process of constantly reconfiguring relationships. Modern digital networks and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economy enhance the practical feasibility of this model, demonstrating the transitional nature of the modern social system from the logic of possession to the logic of relationships.

To deepen the theoretical analysis, the Eurasian region is considered as the key research area. Eurasia represents a macro-civilizational space with a high degree of cultural, linguistic, and religious diversity. Its structure is characterized not by homogeneity, but by the constant interaction and overlap of various civilizational elements, making this region an important laboratory for the development of new community models.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study includes an analysis of classical and contemporary sociological concepts, including Thomas Hobbes’s social contract theory, Amy Chua’s diversity theory, and Edward Glaeser’s urban theory. Hobbes viewed the state as a mechanism for ensuring order;

but modern reality demonstrates the limitations of its control capabilities. Chua emphasizes that the resilience of complex societies is determined by a combination of diversity and tolerance. Glaeser, in turn, emphasizes the role of openness and the density of interactions as factors in innovative development.

Based on these theoretical approaches, the new community is defined by three key principles: extensibility, openness, and flexibility. These principles facilitate the transition from static institutional structures to a dynamic network system. As a result, the new community is understood not as a replacement for the state, but as a supranational coordination system that incorporates state structures into a broader network of relationships.

Keywords: new community, Eurasian community, state-centric order, global governance, network social system, relational society, possession and relationship, transnational cooperation, diversity and tolerance, openness, extensibility, flexibility, structural transformation,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1. 서론: 새로운 공동체 논의의 시대적 배경

1.1 문제 제기

21세기 글로벌 사회는 기술적 측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상호 연결성을 달성하였지만, 정치적·문화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분절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화는 경제 영역에서 국가 간의 의존성과 통합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나, 동시에 국가주의의 재강화, 지역 갈등의 심화, 이념적 대립의 확산과 같은 역설적 결과를 동반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존의 국가 중심 국제 질서가 전 지구적 차원의 복합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기후 변화, 글로벌 팬데믹, 난민 이동, 디지털 격차와 같은 문제들은 특정 국가 단위의 정책적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문제들은 상호 연결된 글로벌 시스템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권 국가 체계를 기반으로 한 접근 방식은 점차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현대 국제 사회는 국가 중심 질서를 보완하거나 재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협력 구조를 모색해야 하는 전환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유라시아 재단의 비전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기존 국제 질서가 지닌 구조적 한계를 전제로 할 때, 유라시아 재단의 비전은 단순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넘어, 인간 사회의 조직 원리 자체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이는 기존의 국가 중심 질서를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질서 위에 새로운 형태의 초국가적 연결 구조를 설계하려는 이론적·실천적 모델이다.

현대 국제 시스템은 여전히 주권 국가를 기본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치적 권위와 제도적 결정은 대부분 국가 단위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글로벌 차원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점점 더 비효율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후 변화, 팬데믹, 에너지 위기, 디지털 플랫폼 규제, 난민 이동과 같은 문제들은 특정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복수의 국가와 지역이 동시에 얽혀 있는 초국가적 구조 속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의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참여 구조”와 “공동체 형성 방식” 자체의 재설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라시아 재단은 공동체의 작동 원리를 국가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다. 여기서 공동체는 더 이상 특정 영토나 정치 체제에 의해 정의되는 고정된 단위가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 유동적 네트워크로 이해된다. 이 네트워크는 중앙집중적 권력 구조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독립적 노드들이 자율적으로 연결되고 협력하는 분산형 구조를 가진다.

유라시아 재단이 제시하는 이러한 비전은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구체화된다. 이 원칙들은 단순한 가치 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실제로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한 구조적 기준으로 기능한다.

첫째, **보편적 참여성(universal participation)**은 공동체 구성의 자격을 국가, 민족, 문화적 배경이 아닌 개인의 존재 자체로 확장하는 원칙이다. 기존 국제 질서에서 개인은 대부분 국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국제 활동에 참여하는 구조에 놓여 있었다. 즉, 개인은 “시민”으로서 국가에 속하고, 그 국가를 통해 국제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발전은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개인은 이미 국경을 넘어 학문, 경제, 문화, 사회적 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보편적 참여성은 단순히 접근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공동체의 기본 단위를 “국가”에서 “개인과 네트워크”로 재구성하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둘째, **자유 보장(guarantee of freedom)**은 형식적 권리 선언을 넘어 실질적 작동 조건으로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는 사상, 종교, 표현의 자유가 법적으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 구조 속에서 제한 없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포함한다. 역사적으로 자유는 국가 권력과 시민 사회 간의 긴장 속에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왔지만, 여전히 많은 경우 자유는 제도적 조건, 정치적 이해관계, 경제적 구조에 의해 제한된다. 유라시아 재단이 제시하는 자유는 특정 이념 체계에 종속된 자유가 아니라, 다양한 가치 체계가 공존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 개념은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이 충돌 없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기반으로 작동한다.

셋째, **비정치성 원칙(non-political principle)**은 공동체 운영 구조가 특정 국가, 정부, 정당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여기서 비정치성은 정치의 부정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의 과도한 개입을 제한함으로써 공동체의 중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원칙이다. 현대 국제 협력 구조는 종종 특정 국가의 전략적 이해나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방향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신뢰 구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비정치성 원칙은 공동체를 특정 권력 중심에서 분리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협력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각각 독립된 규범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되어 새로운 공동체 구조의 기본 설계 원리를 형성한다. 즉, 보편적 참여성은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를 규정하고, 자유의 보장은 “어떤 조건에서 참여가 가능한가”를 정의하며, 비정치성은 “어떤 권력 구조 속에서 공동체가 운영되는가”를 규정한다. 이러한 구조적 결합을 통해 유라시아 재단의 비전은 단순한 이상적 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 가능한 제도적 모델로 구체화된다.

결과적으로 유라시아 재단의 비전은 국가 중심 질서를 단순히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차원의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인간 사회가 폐쇄적이고

경계 중심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네트워크 기반의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전환적 모델이며, 현대 국제 질서의 구조적 재편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적 틀로 이해될 수 있다.

전통적 국가 중심 체제와 새로운 공동체 모델의 구조적 차이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구분	전통적 국가 중심 체제	새로운 공동체 모델 (유라시아 재단)
기본 참여 단위	국가	개인 + 네트워크
구조 형태	위계적 · 중앙집중형	분산형 · 네트워크형
국제 시스템 참여 방식	국가를 통한 간접 참여	개인의 직접 참여
상호작용 논리	국가 간 경쟁 중심	협력 및 조정 중심
핵심 자원	영토, 권력, 통제	지식, 정보, 연결성
자유 의 개념	국가 제도 내 제한된 자유	구조적으로 보장된 자유
정치적 의존성	국가 이해관계에 강하게 의존	정치적 개입 최소화 (비정치성 원칙)
경계 구조	고정된 국가 경계	유동적이고 개방된 네트워크 경계

2.1. 공동체의 역사적 진화

공동체는 인류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고정된 사회적 형태로 존재해 온 것이 아니라, 시대적 조건, 생산 양식, 기술 발전, 그리고 의사소통 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구성되어 온 동적 사회 구조(dynamic social structure)이다. 따라서 공동체는 단일한 정의로 환원될 수 있는 실체라기보다, 인간의 상호작용 방식이 구조화된 역사적 결과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인간은 생존과 협력이라는 기본 조건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조직화해 왔으며, 이러한 조직 방식은 역사적으로 점진적인 확장과

복잡화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다. 공동체의 진화는 단순한 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관계 형성의 기준과 사회 통합 원리의 변화라는 점에서 구조적 전환으로 이해된다.

2.1.1 혈연 공동체 (Blood Community)

가장 초기 형태의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이다. 이 단계에서 공동체의 결속 원리는 생물학적 혈연 관계에 기반하였다. 즉, 공동체 구성의 기준은 제도나 규범이 아니라 출생과 혈통이라는 자연적 조건이었다.

이 구조에서 인간의 신뢰 관계는 친족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협력 또한 가족 및 부족 단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공동체의 경계는 매우 명확하게 내부와 외부로 구분되었고, 외부 집단과의 관계는 불확실성과 잠재적 적대성을 전제로 했다.

따라서 혈연 공동체는 높은 내부 결속력과 생존 안정성을 제공하는 반면, 구조적 확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2.1.2 지역 공동체 (Local Community)

농업의 정착화와 생산 구조의 안정화는 공동체의 새로운 형태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 단계에서 등장한 것이 지역 공동체이다.

지역 공동체는 혈연 관계를 넘어 지리적 근접성과 생활 공간의 공유를 핵심 기준으로 한다. 마을, 도시, 지역 단위의 공동체는 공동 생산과 사회적 규범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며, 신뢰 관계 또한 공간적 공존을 통해 확장되었다.

이 단계의 중요한 변화는 공동체 형성 기준이 생물학적 조건에서 공간적 조건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공동체는 물리적 경계에 의해 제한되었으며, 공간적 분리가 곧 사회적 분리를 의미하는 구조를 유지하였다.

2.1.3 국가 공동체 (Nation-State Community)

근대 이후 산업화와 정치 제도의 발전은 국가 공동체의 형성을 가져왔다. 이 단계에서 공동체는 단순한 지역 단위를 넘어, 법·제도·언어·교육 시스템을 공유하는 거대한 정치적 구조로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더 이상 혈연이나 지역의 구성원이 아니라 “국가 시민(citizen)”이라는 정치적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다. 국가는 공동체의 통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단위로 기능하며, 교육, 행정, 법률을 통해 일관된 사회 질서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국가 공동체는 동시에 구조적 긴장을 내포한다. 국가 간 경쟁 구조, 민족주의의 강화, 이념적 대립은 공동체의 경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외부와의 충돌 가능성을 확대하였다. 즉, 국가 공동체는 내부 통합과 외부 분리라는 이중 구조를 가진 체제이다.

2.1.4 글로벌 네트워크 공동체 (Global Network Community)

현대 사회는 새로운 단계인 글로벌 네트워크 공동체로 전환되고 있다. 이 단계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공동체 형성의 기준이 더 이상 물리적 공간이나 정치적 경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인터넷의 확산, 글로벌 경제 및 정보 구조의 통합은 인간 관계를 국가 단위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다. 개인은 더 이상 단일 국가 공동체에만 속하지 않으며, 학문·경제·문화·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다중 네트워크 공동체에 동시에 참여하는 구조를 형성한다.

이 단계에서는 공동체의 구조적 기반이 “영토”에서 “연결성(connectivity)”으로 이동하며, 사회 통합의 방식 또한 제도적 강제에서 네트워크 기반 자율 연결로 전환된다.

2.1.5 공동체 개념의 구조적 전환

이러한 역사적 변화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공동체 개념 자체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과거 공동체는 “소속(belonging)”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즉, 개인은 특정 집단에 속함으로써 정체성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현대 공동체는 “연결(connectivity)”과 “참여(participation)”를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이는 공동체가 더 이상 폐쇄적 단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관계망을 의미한다.

표 2. 공동체의 역사적 진화 단계 비교

단계	공동체 유형	결속 기준	공간 구조	사회 통합 방식	주요 특징
1	혈연 공동체	혈통, 가족	매우 제한적	친족 신뢰	강한 결속, 낮은 확장성
2	지역 공동체	지리적 근접성	지역 단위	생활 규범, 공동 생산	공간 기반 통합
3	국가 공동체	시민권, 제도	영토 국가	법·교육·제도	강한 제도적 통합
4	글로벌 네트워크 공동체	연결성, 참여	비물리적 네트워크	정보·협력·플랫폼	탈영토화, 다중 소속

2.1.6 과도기적 구조와 이론적 함의

현재 인류는 국가 공동체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공동체로 이동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위치해 있다. 이 전환은 단순한 구조 변화가 아니라, 인간이 사회를 인식하고 정체성을 구성하는 방식 자체의 변화를 포함한다.

과거에는 공동체가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구조였다면, 현대에는 개인의 다층적 정체성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동한다. 즉, 공동체는 더 이상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 관계의 축적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구조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역사적 진화는 고정된 사회 형태의 변천이 아니라, 관계 형성 방식의 점진적 확장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은 공동체를 실체가 아닌 “관계적 구조(relational structure)”로 재정의하게 하며, 이는 이후 논의되는 “관계 중심 공동체” 개념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2.2 공동체 개념의 현대적 확장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 개념은 더 이상 단일한 사회적 결속 형태로 이해될 수 없으며, 규범적 질서, 합리성 구조, 그리고 네트워크적 상호작용의 교차 지점에서 재구성되고 있다. 특히 근대 이후의 사회 이론은 공동체를 단순한 집단적 소속이 아니라, 의사소통 구조, 권력 관계, 그리고 연결망의 복합적 체계로 분석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동체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성되는 과정(process of constitution)”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이론적 전환을 설명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Jürgen Habermas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 Max Weber의 합리화 개념, 그리고 현대 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공동체 개념의 확장 양상을 분석한다.

2.2.1 의사소통 합리성과 생활세계의 재구성 (하버마스)

Jürgen Habermas는 현대 사회를 시스템(system)과 생활세계(lifeworld)의 이중 구조로 설명한다. 시스템은 경제와 행정과 같이 기능적 합리성에 의해 작동하는 영역이며, 생활세계는 언어적 상호작용과 문화적 의미가 형성되는 영역이다. 공동체는 전통적으로 생활세계에 기반하여 형성되어 왔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시스템의 논리가 점차 생활세계를 침투하면서 공동체 구조의 변형이 발생한다.

하버마스의 관점에서 공동체의 핵심은 권력이나 경제적 교환이 아니라 “의사소통 행위(communicative action)”에 있다. 즉, 합리적이고 왜곡되지 않은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공동체는 정당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전략적 행위(strategic action)가 의사소통 공간을 잠식하면서, 공동체의 의미 기반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은 현대 공동체가 단순한 제도적 통합이 아니라, 의사소통 구조의 회복과 재구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2.2.2 합리화와 탈마법화: 근대 공동체의 구조적 변화 (베버)

Max Weber는 근대 사회의 핵심 특징을 “합리화(rationalization)”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종교적 권위는 점차 법적·관료적 권위로 대체되며, 사회는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재구성된다. 그는 이러한 변화를 “탈마법화(disenchantment)”라고 개념화하였다.

이 관점에서 공동체는 전통적 가치와 감정적 유대에 기반한 구조에서, 규칙과 제도에 기반한 합리적 구조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화는 동시에 인간 관계의 형식화를 초래하며, 공동체 내부의 의미적 결속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즉, 베버의 이론은 현대 공동체가 높은 제도적 안정성을 가지는 동시에, 정서적·문화적 결속력의 약화를 경험하는 구조적 역설을 설명한다. 이는 국가 공동체의 한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2.2.3 네트워크 이론과 연결성 중심 공동체

현대 사회이론에서는 공동체를 더 이상 위계적 구조로 보지 않고, 노드(node)와 연결(link)로 구성된 네트워크 구조로 분석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 관점에서 공동체는 중심이 존재하는 집합이 아니라, 관계의 밀도와 연결성에 의해 구성되는 동적 구조이다.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공동체의 핵심 단위가 개인이나 집단 자체가 아니라, 그들 간의 연결 관계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강도는 구성원의 수가 아니라 연결의 질과 빈도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특정 중심이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노드들이 분산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전체 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네트워크적 관점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현실적인 설명력을 갖는다.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글로벌 플랫폼은 물리적 경계를 초월한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공동체를 공간 기반 구조에서 연결 기반 구조로 전환시키고 있다.

2.2.4 이론적 종합: 공동체 개념의 구조적 전환

이상의 이론들을 종합하면, 현대 공동체 개념은 세 가지 차원의 전환을 통해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하버마스의 관점에서 공동체는 의사소통의 정당성 구조로 이해되며, 둘째, 베버의 관점에서는 합리화 과정 속에서 제도 중심 구조로 전환되며, 셋째,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연결성 중심의 분산 구조로 재구성된다.

이러한 전환은 공동체가 더 이상 단일한 사회적 단위가 아니라, 의사소통·제도·네트워크가 중첩된 복합 구조임을 의미한다. 즉, 현대 공동체는 “소속의 구조”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동체 개념의 현대적 확장은 근대 사회 이론의 핵심 전환 - 의사소통 합리성, 합리화 과정, 그리고 네트워크 구조 - 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통합은 공동체를 고정된 사회 단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관계적 시스템으로 이해하게 한다. 이는 이후 논의되는 “네트워크형 새로운 공동체” 개념의 이론적 기반을 형성한다.

3. 인간 활동의 구조: 소유와 관계의 철학적 이중성

인간 사회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적·정치적 제도 분석을 넘어, 인간 존재가 세계와 맺는 근본적인 존재론적 관계 방식에 대한 철학적 분석이 요구된다. 인간은 단순히 자원을 소비하고 생산하는 기능적 존재가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고 의미화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구성하는 관계적 존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활동은 크게 소유(Possession)와 관계(Relationship)라는 두 가지 철학적 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두 개념은 단순한 사회경제적 범주가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대상으로 구성하는 방식”과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방식”이라는 서로 다른 존재론적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3.1 소유의 존재론: 대상화, 통제, 그리고 근대적 주체

소유 중심의 세계관은 인간이 세계를 독립적이고 외재적인 대상(object)으로 인식하는 방식에서 출발한다. 이 관점에서 세계는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자원이며, 인간의 역할은 이를 인식하고, 분할하고, 축적하며, 통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인식 구조는 근대 철학의 주체 중심 형이상학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특히 René Descartes 이후 형성된 근대적 주체

개념은 인간을 “생각하는 자아(cogito)”로 설정하고, 세계를 객관적 인식 대상(object of cognition)으로 전환시켰다. 이후 인식론적 주체는 자연과 사회를 수학적·과학적으로 분석 가능한 구조로 재구성하게 된다.

이 과정은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였다. 세계는 더 이상 의미와 관계의 장이 아니라, 측정 가능하고 계산 가능한 객체들의 집합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근대 과학과 산업 체계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세계를 철저히 도구화하는 경향을 강화하였다.

이후 이러한 소유 중심 구조는 자본주의 체계 속에서 극대화된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축적(accumulation)과 경쟁(competition)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며, 이는 소유의 증가를 사회적 가치의 핵심 기준으로 설정한다. 그 결과 인간 관계는 협력보다는 경쟁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회적 상호작용은 점차 경제적 효율성과 교환 가치 중심으로 구조화된다.

그러나 소유 중심 구조는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인간 존재의 관계 구조 자체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 소유 중심 논리는 본질적으로 “무한 축적(infinite accumulation)”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원이 유한하다는 현실적 조건과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일부 주체에게 자원과 부가 집중되는 반면, 다수의 주체는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경향이 강화되며, 결과적으로 사회 내부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심화된다. 이는 단순한 분배 문제를 넘어, 구조적으로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체계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둘째, 소유 중심 구조에서는 타자가 협력의 주체가 아니라 경쟁과 계산의 대상으로 환원되는 경향이 강화된다. 즉, 인간 관계는 상호 인정과 상호성에 기반하기보다는, 효용과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적 관계로 재구성된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적 신뢰(social trust)의 기반을 약화시키며, 공동체 내부의 연대 가능성을 점차 축소시킨다. 결국 사회는 협력 구조가 아니라 상호 불신과 경쟁이 구조화된 체계로 변질될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셋째, 소유 중심 세계관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대상화한다는 점에서 생태적 위기를 구조적으로 내재한다. 자연은 더 이상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개발과 이용의 대상으로 간주되며, 이는 무한한 개발과 소비 논리를 정당화하는 기반이 된다. 그 결과 환경 파괴,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와 같은 생태 위기가

단순한 부수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넷째, 소유 중심 구조에서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질적 관계에서 양적 축적으로 이동하게 된다. 인간의 삶, 관계, 경험조차도 점차 수량화되고 비교 가능한 형태로 환원되며,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강화된다. 이러한 왜곡은 인간 경험의 질적 차원을 약화시키고, 삶의 의미를 단순한 축적의 논리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소유 중심 구조는 경제적 효율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 관계의 파편화, 생태 위기, 그리고 가치 체계의 왜곡이라는 다층적 한계를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2 관계의 존재론: 상호의존성과 구성적 존재

반면 관계 중심의 존재론은 인간과 세계를 분리된 실체로 보지 않고, 상호 연결된 관계망 속에서 지속적으로 구성되는 존재로 이해한다. 이 관점에서 존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과정 (process of becoming)이다.

이러한 사고는 현대 철학의 여러 흐름과 연결된다. 예를 들어 Martin Heidegger는 인간 존재를 세계-내-존재(Dasein)로 규정하며, 인간이 이미 세계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Maurice Merleau-Ponty의 현상학은 인간 경험이 신체와 세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사회이론에서도 유사한 전환이 나타난다. 인간은 독립된 단위가 아니라,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구성되는 존재로 이해되며, 사회 구조 역시 이러한 관계들의 패턴으로 분석된다.

관계 중심 구조에서 핵심 개념은 “소유”가 아니라 참여(participation)이다. 인간은 세계를 소유하는 주체가 아니라, 세계의 생성 과정에 참여하는 존재이다. 지식, 문화, 경제 활동 또한 개인의 독점적 자산이 아니라, 관계적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되고 재구성되는 공공적 산물로 이해된다.

표 3. 소유 중심 구조와 관계 중심 구조 비교

구분	소유 중심 구조	관계 중심 구조
존재 이해	독립적 실체	관계 속 구성된 존재
세계 인식 방식	대상화 (objectification)	연결성 (relationality)
핵심 행위	축적, 통제	참여, 연결
경제 구조	경쟁 중심 자본 축적	협력 중심 네트워크 경제
사회 구조	위계적 구조	네트워크 구조
인간 관계	경쟁, 분리	협력, 상호의존
가치 기준	소유량, 자원 점유	연결성, 관계의 질
철학적 기반	근대 주체 철학	현상학 · 관계 존재론

3.3 패러다임 전환: 소유에서 관계로

소유와 관계의 구분은 단순한 개념적 이분법이 아니라, 현대 문명이 경험하고 있는 구조적 전환을 설명하는 핵심 분석틀이다. 현재 인류 사회는 소유 중심 문명이 지닌 구조적 한계가 점차 명확해지는 동시에, 관계 중심 문명의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과도기적 단계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부분적 사회 변화가 아니라, 경제 · 사회 · 철학 전 영역을 관통하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전환은 서로 분리된 세 가지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동된 구조적 변화로 나타난다. 즉, 경제 구조의 변화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촉진하고, 이는 다시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이해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체 시스템이 재구성된다.

먼저 **경제적** 차원에서의 변화는 소유 중심 구조의 한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전통적 산업 경제는 희소한 자원의 배분과 축적을 중심으로 작동하며, 소유의 확대가 곧 경제적 성공과 직결되는 구조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정보와 지식은 물리적 자원과 달리 비배타적이며, 동시에 복제와 확산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로 인해 경제적 가치의 중심은 “소유”에서 “접근(access)”과 “공유(share)”로 이동하고 있으며, 플랫폼 경제, 오픈소스 생태계, 협업 기반 지식 생산 구조는 이러한 전환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결과적으로 경제 활동은 경쟁적 축적 구조에서 네트워크 기반 협력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정체성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 사회에서는 개인이 비교적 고정된 공동체 - 가족, 지역, 국가 - 에 귀속되어 단일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더 이상 단일한 공동체에 고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사회적·디지털 네트워크 속에서 동시에 여러 관계를 형성한다. 이로 인해 정체성은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관계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유동적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사회 구조 또한 위계적 조직 중심에서 탈피하여, 상호 연결된 분산 네트워크 구조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통합 방식 자체가 “중심 통제”에서 “연결 기반 조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철학적 차원**에서의 변화는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전환의 심층적 기반을 형성한다.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는 점차 “소유하는 주체”에서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존재”로 이동하고 있다. 즉, 인간은 독립적으로 완결된 실체가 아니라, 타자 및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의미를 획득하는 존재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을 고립된 개체로 파악했던 근대적 주체 중심 철학을 넘어, 상호의존성과 관계성을 존재의 기본 조건으로 설정하는 존재론적 전환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소유에서 관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특정 영역에 국한된 변화가 아니라, 경제 구조, 사회 조직, 인간 존재 이해 방식이 동시에 재구성되는 총체적 변형 과정이다. 이러한 전환은 현대 문명이 더 이상 고립된 단위와 경쟁 중심 구조에 의해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주며, 관계성과 연결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 이론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한다.

3.4 철학적 함의: 인간 존재의 재정의

소유와 관계의 이중 구조는 단순히 사회적 행동 양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분석 틀을 넘어, 궁극적으로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정의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철학적 전환을 포함한다. 전통적인 소유 중심 세계관에서 인간은 세계를 인식하고 통제하며, 외부 대상을 축적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장하는 주체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인간과 세계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으며, 세계는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객체적 질서로 간주된다.

그러나 관계 중심 세계관에서는 이러한 분리 자체가 더 이상 자명한 전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인간은 세계와 분리된 독립적 실체가 아니라, 세계 및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구성되고 변화하는 존재로 이해된다. 즉, 존재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관계적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과정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윤리적 가치의 선택이 아니라, 존재론적 구조 자체의 변화이다. 인간은 더 이상 완결된 자족적 실체가 아니라, 관계망 속에서 끊임없이 형성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적 존재(processual being)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관점에서 “인간은 존재한다”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타자 및 세계와의 관계 속에 편입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존재론적 전환은 공동체 개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인 공동체 이론에서 공동체는 개별 주체들이 모여 형성하는 고정된 집합체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관계 중심 존재론에서는 공동체 자체가 이미 완결된 구조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들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생성해내는 과정적 구조로 재정의된다. 즉, 공동체는 결과적으로 형성된 “구조”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행 중인 “관계의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동체는 더 이상 경계로 구분된 안정된 단위가 아니라, 관계의 밀도와 연결의 패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동적 네트워크로 이해된다. 이는 공동체를 정적인 실체로 보는 전통적 관점을 해체하고, 관계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 존재론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소유에서 관계로의 전환은 현대 사회가 경험하는 구조적 변화의 핵심 축일 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 방식 자체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 사회, 철학 전 영역에 걸친 포괄적 패러다임 이동으로서, 경쟁과 분리 중심의 질서에서 협력과 연결 중심의 질서로 이동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동시에 이러한 전환은 새로운 공동체 이론의 존재론적 기반을 형성하며, 인간 사회를 고정된 구조가 아닌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관계적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4. 국가와 개인: 경계의 형성과 구조적 한계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근대 정치철학의 핵심 주제이며, 동시에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분석 축 중 하나이다. 국가는 질서와 안정의 기제로 기능하는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가능성을 규정하는 구조적 틀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를 단순히 “보호 장치”로만 이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그 형성과 작동 방식, 그리고 내재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4.1 국가의 형성 원리

근대 국가의 형성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는 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이다. 그는 인간의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불안정성과 폭력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들이 일정한 권리를 공동체적 권력에 위임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때 형성되는 것이 바로 국가이며, 국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독점하는 구조적 권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는 단순한 행정 기구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근본적 불안을 제어하기 위한 “필수적 권력 장치”로 이해된다. 즉, 국가는 질서의 창출자이자 동시에 무질서의 억제자로 기능한다. 근대 정치 질서는 이러한 국가의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으며, 법과 제도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이러한 형성 원리는 동시에 특정한 전체를 포함한다. 그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상호 불신과 경쟁 상태에 존재한다는 가정이다. 즉, 국가의 존재는 인간 관계의 불완전성과 갈등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경계 기반 질서” 위에 구축되어 있다.

4.2 국가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국가가 질서 유지와 안정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점차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크게 내부적 경계와 제도적 경계라는 두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

4.2.1 내부적 경계 (Internal Boundaries)

첫째, 국가 내부에는 문화적 배타성이 존재한다. 국가는 특정 언어, 역사, 문화적 서사를 중심으로 국민 정체성을 형성하며, 이 과정에서 비주류 문화나 소수 집단은 주변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는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성의 억압이라는 역설적 결과를 낳는다.

둘째, 사회적 계층화 역시 내부적 경계의 중요한 요소이다. 경제적 불평등, 교육 기회의 차이, 사회적 자본의 불균형은 동일한 국가 내에서도 사실상 서로 다른 “사회적 세계”를 형성하게 만든다. 이는 국가가 하나의 통합된 공동체로 기능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다.

셋째, 정체성의 분리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개인은 더 이상 단일한 국가 정체성으로만 규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문화적 · 직업적 · 디지털 정체성을 동시에 가진 존재로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가 요구하는 단일한 시민 정체성과 실제 개인의 다층적 정체성 사이에는 지속적인 긴장이 발생한다.

4.2.2 제도적 경계 (Systemic Boundaries)

국가 시스템은 또한 제도적 구조 자체에서 비롯되는 한계를 가진다.

첫째, 법적 제한은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변화에 대한 적응 속도를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법과 제도는 본질적으로 안정성을 기반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급격한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둘째, 행정적 경직성은 중앙집중적 구조에서 더욱 강화된다. 대규모 국가 시스템은 효율성과 통제를 위해 표준화된 행정 절차를 필요로 하지만, 이는 개별 상황에 대한 세밀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셋째, 국제 협력의 제한성은 국가 중심 질서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 한계 중 하나이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설계된 체계이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의 문제 - 예를 들어 환경 문제, 보건 위기, 기술 규제 - 에 대해 충분히 통합된 대응을 수행하기 어렵다.

4.2.3 현대 사례 분석: 국가 통제의 구조적 한계

이러한 국가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는 추상적 이론 수준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진과 쓰나미라는 자연적 요인과 원자력 발전 시스템이라는 고도 기술 인프라가 결합된 복합 재난(**complex disaster**)의 형태로 발생하였다. 당시 일본은 세계적으로 가장 정교한 행정 시스템과 높은 수준의 기술적 안전 규제를 갖춘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연쇄적 재난 상황 속에서 국가 차원의 통제 능력은 한계에 직면하였다.

특히 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개별 시스템의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 간 상호작용에서 발생한 “비선형적 위험 구조” 이다. 즉, 자연재해, 에너지 인프라, 정보 통신, 위기 대응 행정 체계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요소에서 발생한 충격이 전체 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Ulrich Beck이 지적인 “위험 사회(risk society)”의 특징과도 일치한다. 베크에 따르면 현대 사회는 위험을 외부에서 통제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 사회 구조 내부에서 생산되는 내재적 결과로 경험하게 된다. 후쿠시마 사례는 바로 이러한 “내재적 위험 구조”가 현실적으로 작동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은 국가의 기술적 역량과 행정적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통제(control totality)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국가가 아무리 정교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복잡계적 상호작용과 예측 불가능한 외부 충격 앞에서는 항상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현대 사회는 단일 국가 내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공급망, 정보 네트워크, 금융 시스템, 환경 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요소들이 상호 연결된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위험이 특정 국가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초국가적 수준에서 확산되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단일 국가 단위의 대응 능력은 점차 구조적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볼 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단순한 국가 실패 사례라기보다는, 현대 국가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조건(structural condition)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국가는 여전히 중요한 안전 및 조정 장치로 기능하지만, 모든 위험을 완전히 관리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절대적 통제 주체로서의 지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단순한 보호와 의존의 관계로 환원될 수 없으며, 경계 설정과 위험 관리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 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 국가는 질서와 안전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 자체로 새로운 형태의 경계를 생성하며, 개인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안정성과 제약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구조적 긴장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국가 중심 질서가 더 이상 단독으로 사회적 위험과 복잡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가의 기능은 여전히 유지되되, 그것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상위 수준의 네트워크적 협력 구조 - 즉 새로운 공동체 모델 - 가 필요하다는 이론적 결론으로 연결된다.

5. 다양성과 개방성: 유라시아 모델

현대 세계에서 공동체의 재구성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다양성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수용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단일한 문화나 가치 체계에 기반한 공동체 모델은 역사적으로 높은 통합성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외부에 대한 배타성과 내부 다양성의 억압이라는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라시아 지역은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가장 복합적이고 상징적인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5.1 유라시아의 구조적 특성

유라시아는 단순한 지리적 구획이나 행정적 범주를 넘어서는 거대한 문명사적 공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라는 서로 다른 역사적·문화적 축이 장기간에 걸쳐 교차하고 충돌하며 공존해 온 영역으로, 세계 인구의 과반 이상이 실제로 이 공간 내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유라시아는 단일한 문화권이라기보다, 다양한 문명적 요소들이 중층적으로 결합된 복합적 구조를 가진 거대한 시스템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라시아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징은 “동질성(homogeneity)”이 아니라 “복합성(complexity)”에 있다. 이 복합성은 단순히 다양한 문화가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 다른 언어 체계, 종교적 전통, 정치적 경험, 역사적 기억이 지속적으로 교차하고 충돌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생성해내는 동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라시아는 정적인 문명 단위가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문명적 장(civilizational field)”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특정한 중심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양한 문명적 요소들이 상황에 따라 중심과 주변의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상호작용한다. 즉, 유라시아는 위계적 중심 구조가 아니라, 다중 중심성과 분산적 연결성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이다.

또한 이 지역의 역사적 경험은 단일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다. 제국의 형성, 분열, 통합, 이주, 교역, 전쟁과 평화의 반복은 유라시아 공간이 본질적으로 “비선형적 역사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선형성은 특정한 단일 문명 논리로 설명될 수 없으며, 오히려 상이한 문명 논리들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만들어내는 복합적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유라시아를 단순한 지역 단위가 아니라, 세계 문명 구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분석 공간으로

만든다. 즉, 유라시아는 서로 다른 문명들이 단순히 공존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질서와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동적 문명 시스템(dynamic civilizational system)”이다.

결과적으로 유라시아의 구조적 특성은 고정된 경계와 단일한 정체성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 공동체 개념과 근본적으로 상충한다. 오히려 이 공간은 경계의 유동성, 정체성의 다층성, 그리고 관계의 지속적 재구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특성은 새로운 형태의 초국가적 공동체 모델을 사유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5.2 다양성과 제국 이론

다양성과 관용의 문제는 단순한 윤리적 가치의 차원을 넘어, 복합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적응력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Amy Chua는 역사적 제국의 흥망을 분석하며, “다양성(diversity)과 관용(tolerance)의 결합”이 장기적 성공을 결정짓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분석은 제국을 단순한 정치·군사적 지배 체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집단을 포괄하고 조정하는 복합적 통합 시스템으로 재해석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먼저, 단일 민족이나 단일 문화에 기반한 체제는 초기 단계에서 강한 결속력과 내부 통합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규범의 일관성, 의사결정의 효율성, 그리고 집단 정체성의 명확성을 바탕으로 단기적 안정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질성 중심 구조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내포한다. 동일한 가치 체계와 사고방식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될 경우, 체제 내부의 다양성이 축소되고, 이는 결국 혁신 능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다양한 민족·문화·종교를 포괄하는 체제는 초기에는 내부적 긴장과 갈등 가능성을 내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수준의 적응성과 창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서로 다른 인식 체계와 경험이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해결 방식과 지식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즉, 다양성은 단순한 차이의 공존이 아니라, 체제 내부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생성하는 “인지적 자원(cognitive resource)”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다양성이 자동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관용이다. 관용은

단순한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차이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그 차이가 갈등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다양성은 “잠재적 자원”이며, 관용은 그 자원을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다음과 같은 인과 구조로 정리될 수 있다.

표 4. 다양성과 관용의 구조적 인과 관계

단계	요소	기능	결과
1	다양성	다양한 경험 · 지식의 축적	잠재적 혁신 자원 형성
2	관용	차이에 대한 제도적 인정	갈등 억제 및 협력 촉진
3	상호작용	이질적 요소 간 교류	새로운 아이디어 생성
4	시스템 효과	적응력 및 유연성 증가	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

이와 같은 구조는 제국뿐만 아니라 현대의 복합 사회, 특히 글로벌 네트워크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오늘날 세계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 체계가 상호 연결된 상태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에서는 단일한 규범이나 동질성에 기반한 통합 방식이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다양성은 단순한 사회적 이상이 아니라, 복잡한 환경 속에서 시스템이 생존하고 진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동시에 관용은 이러한 다양성이 갈등으로 전환되지 않고, 생산적 상호작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필수적 조정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결과적으로 Amy Chua의 제국 이론은 유라시아와 같은 복합 문명 공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며, 나아가 새로운 공동체 모델이 지향해야 할 핵심 원리가 단일성의 강화가 아니라, 다양성과 관용의 구조적 결합에 있음을 시사한다.

5.3 도시와 개방성

도시는 단순한 인구 집적 공간을 넘어, 지식의 생산과 확산, 그리고 혁신의 촉진이 이루어지는 핵심적 사회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Edward Glaeser는 도시를 “인간 자본의

집적과 상호작용이 결합된 공간”으로 정의하며, 특히 **개방성(openness)**과 **밀집성(density)**의 결합이 혁신을 극대화하는 핵심 조건이라고 분석한다.

먼저, 도시의 밀집성은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물리적·사회적으로 근접하게 배치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정보와 아이디어가 빠르게 교환되며, 비공식적 접촉과 우연적 만남(serendipity)이 증가한다. 이는 지식의 축적뿐 아니라, 서로 다른 분야 간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밀집성만으로는 혁신이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도시가 폐쇄적 구조를 유지한다면, 동일한 정보와 규범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면서 오히려 창의성이 제한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개방성이다. 개방성은 단순히 외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물리적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과 집단이 자유롭게 유입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환경을 포함한다. 즉, 개방성은 이질성(heterogeneity)을 수용하고, 그것이 실제로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조건이다.

이러한 밀집성과 개방성의 결합은 다음과 같은 인과 구조를 통해 혁신을 생성한다.

표 5. 도시 개방성과 혁신의 인과 구조

단계	구조적 요소	기능	결과
1	밀집성 (Density)	인구 및 활동의 집중	접촉 기회 증가
2	개방성 (Openness)	다양한 집단의 유입	이질성 확보
3	상호작용 (Interaction)	정보·지식 교류	아이디어 결합
4	창발성 (Emergence)	새로운 해결 방식 생성	혁신 및 생산성 증가

이러한 도시적 원리는 단순히 도시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확장된 사회 구조 - 특히 유라시아와 같은 초대형 복합 공간 - 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모델로 기능한다. 즉, 유라시아는 하나의 거대한 “확장된 도시적 구조”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와 사회가 밀집하고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도시와 유사한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

이때 개방성은 단순한 물리적 경계의 해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보, 문화, 지식, 인적 자원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네트워크적 환경(networked environment)**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경계(boundary)의 역할이 약화되는 대신, 연결성(connectivity)이 핵심 구조로 부상한다. 즉, 사회적 조직 원리가 “경계 유지”에서 “연결 확장”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공동체 형성 방식 또한 변화한다. 기존 공동체가 영토, 민족, 제도적 경계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다면, 개방적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관계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된다. 개인은 특정 공간에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네트워크에 동시에 참여하며, 그 과정에서 다층적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Edward Glaeser의 도시 이론은 개방성과 밀집성이 결합된 구조가 어떻게 혁신과 협력을 동시에 촉진하는지를 설명하며, 이는 유라시아 모델이 지향하는 초국가적 공동체의 구조적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적 개방성은 단순한 공간적 특성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작동 원리로 이해될 수 있다.

5.4 유라시아 공동체의 의미

앞선 논의 - 유라시아의 복합적 문명 구조(5.1), 다양성과 관용의 결합이 갖는 체제적 효용(5.2), 그리고 개방성과 밀집성이 결합된 도시적 혁신 메커니즘(5.3) - 을 종합하면, 유라시아 공동체는 단일한 통합 모델이 아니라 복합성 · 개방성 · 연결성을 핵심 원리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 시스템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이 모델은 국가를 대체하기보다, 국가를 포함하면서 그 위에서 작동하는 **상위 수준의 네트워크형 공동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유라시아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징을 가진다.

5.4.1 초국가적 협력 구조: 경계 중심에서 문제 중심으로

유라시아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초국가적 **협력 구조(transnational cooperative structure)**이다. 이는 기존의 국가 단위 협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경계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않고 **문제 해결(problem-oriented coordination)**을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 국제 질서는 주권 국가 간 협상과 이해관계 조정에 기반해 왔다. 그러나 기후 변화, 감염병, 에너지 전환, 디지털 거버넌스와 같은 현대의 핵심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국경을 초월하는 특성을 가지며, 단일 국가의 정책 역량만으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 이로 인해 협력의 단위는 “국가 대 국가”에서 “문제 중심 네트워크”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다음과 같은 인과 흐름을 가진다.

표 6. 초국가적 협력 구조의 인과 메커니즘

단계	조건	작동 방식	결과
1	글로벌 문제의 복잡성	국가 경계 초월	단일 국가 대응 한계
2	협력 구조 재편	문제 중심 네트워크 형성	다자 협력 확대
3	조정 메커니즘	분산적 협력 및 정보 공유	대응 효율성 증가
4	구조적 효과	초국가적 거버넌스 형성	지속 가능성 강화

결과적으로 초국가적 협력 구조는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그 경계를 넘는 **유연한 조정 시스템**을 형성하며, 이는 새로운 공동체 모델의 핵심 기반으로 기능한다.

5.4.2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차이의 제거에서 자원의 활용으로

두 번째 특징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구조적 재해석**이다. 전통적 국가 공동체는 내부 통합을 위해 언어, 문화, 정체성의 동질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종종 차이를 억제하거나 주변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라시아 공동체에서는 다양성이 단순히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 **체계의 핵심 자원(resource)**으로 기능한다. 이는 Amy Chua가 강조한 바와 같이, 다양한 집단의 공존이 체제의 적응력과 창의성을 증대시키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점과 일치한다.

다양성이 자원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존이 아니라, **상호작용과 제도적 조정**이 필요하다. 즉, 서로 다른 문화적

요소들이 충돌이 아닌 생산적 교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형성될 때, 다양성은 실질적인 사회적 자산으로 기능하게 된다.

표 7. 다양성의 구조적 전환

단계	요소	기능	결과
1	문화적 차이	다양한 경험 · 지식 축적	잠재적 자원 형성
2	제도적 관용	차이의 인정 및 보호	갈등 완화
3	상호작용	문화 간 교류	새로운 가치 생성
4	구조적 효과	창의성 및 적응력 증가	공동체 지속성 강화

이와 같이 다양성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의 생존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으로 재정의된다.

5.4.3 지식 기반 연결망: 물리적 경계에서 정보 흐름 중심으로

세 번째 특징은 **지식 기반 연결망(knowledge-based network)**이다.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 사회적 활동의 중심은 점차 물리적 자원에서 정보와 지식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공동체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하여 Manuel Castells는 현대 사회를 “네트워크 사회(network society)”로 규정하며, 권력과 생산 구조가 정보 흐름을 중심으로 재편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동체는 더 이상 영토적 경계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연결성(connectivity)**과 정보 교환 구조에 의해 규정된다.

유라시아 공동체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물리적 공간보다 **지식의 흐름과 네트워크 연결**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인과 구조로 설명될 수 있다.

표 8. 지식 기반 연결망의 작동 구조

단계	요소	기능	결과
1	정보 기술 발전	연결 비용 감소	네트워크 확장
2	지식 공유	정보 접근성 증가	협력 가능성 확대
3	네트워크 형성	초국가적 연결	공동체 구조 변화
4	구조적 효과	관계 중심 질서 형성	지속적 혁신 가능

이러한 구조에서는 경계의 의미가 약화되는 대신, 연결의 질과 범위가 공동체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유라시아 공동체는 단일한 규범이나 정체성에 기반하여 구성되는 전통적 통합 모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특정한 중심이나 단일 질서에 의해 조직되는 체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구조와 원리가 동시에 작동하며 상호작용하는 **다층적 공존 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때 공동체는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준에서 형성되는 관계들이 중첩되고 재구성되면서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과정적 구조로 나타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국가, 지역, 그리고 네트워크가 서로 대체 관계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존재한다. 국가는 여전히 제도적 안정성과 질서의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은 문화적 맥락과 생활 세계를 구성하며, 네트워크는 이러한 구조들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세 가지 차원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면서 공동체의 복합적 구조를 형성한다.

이와 동시에 개인의 정체성 역시 단일한 기준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전통적 공동체에서는 개인이 하나의 국가나 문화에 귀속됨으로써 정체성을 획득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현대의 다층적 구조에서는 개인이 다양한 관계망에 참여하면서 복수의 정체성을 동시에 형성한다. 이러한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관계의 변화와 상호작용에 따라 유동적으로 재구성되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공동체는 더 이상 단일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체성이 공존하며 상호작용하는 열린 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

질서의 형성 방식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한다. 전통적인 국가 중심 질서에서는 권력의 집중과 규범의 일원화를 통해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면, 다층적 공동체 구조에서는 질서가 중앙의 통제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 간의 관계적 조정과 협력을 통해 형성된다. 즉, 질서는 위로부터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속에서 생성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유라시아 공동체 모델은 통합을 동일성의 확립이나 차이의 제거로 이해하는 기존의 관점을 넘어선다. 여기서 통합은 서로 다른 요소들이 하나로 수렴되는 과정이 아니라, 차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연결을 확장하는 과정으로 재정의된다. 이는

통합과 다양성이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은 복잡성과 상호의존성이 심화된 현대 사회의 구조적 조건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장, 기술 발전, 문화적 교류의 증가 등은 사회를 점점 더 복합적이고 상호 연결된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단일 중심의 질서만으로는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층적 공존 구조는 선택 가능한 하나의 대안이 아니라, 현대 사회가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구조적 전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라시아 공동체는 기존 국가 중심 질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형성되는 새로운 차원의 연결 구조로서 기능한다. 이는 인간 사회가 폐쇄적이고 경계 중심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새로운 공동체 이론이 실천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다.

6. 새로운 공동체의 이론적 구조

6.1. 새로운 공동체란

새로운 공동체는 기존의 국가 중심 질서를 단순히 대체하는 정치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를 포함하면서도 그 위에서 작동하는 상위 수준의 네트워크형 사회 시스템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는 국가를 부정하거나 폐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라는 기존 구조를 보다 넓은 관계망 속에 재배치함으로써 기능적 전환을 이루는 데 그 본질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공동체는 더 이상 단일한 중심을 가진 위계적 구조로 이해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다양한 노드(node)들이 상호 연결되고 상호 의존하는 분산적 구조로 구성된다. 이 구조에서는 특정한 중심 권력이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수준의 행위자들이 동시에 연결되고 조정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작동한다.

따라서 새로운 공동체의 핵심은 권력과 자원의 집중이 아니라 관계와 연결의 확장에 있다. 즉, 공동체의 안정성은 중앙 통제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전체의 상호작용과 협력 구조를 통해 형성된다.

6.2 새로운 공동체의 핵심 원리

새로운 공동체는 단순한 규범적 선언이나 이상적 가치의 집합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 가능한 사회 시스템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의 구조를 지탱하는 기본 원리가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원리는 상호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구성하는 구조적 조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공동체는 **확장성(expandability), 개방성(openness), 유연성(flexibility)**이라는 세 가지 핵심 원리에 의해 구조화된다.

이 세 원리는 각각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보완하며 작동함으로써 공동체를 정적인 체계가 아니라 **동적이고 적응 가능한 네트워크 구조**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6.2.1. 확장성: 경계 초월과 구조적 포괄성

확장성은 새로운 공동체가 특정 지역, 국가, 문화적 경계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구조적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폐쇄된 단위가 아니라 **개방형 시스템(open system)**으로 작동함을 전제한다.

전통적 공동체는 경계를 통해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고, 그 경계를 유지함으로써 정체성과 질서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외부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제한하고, 새로운 요소의 유입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반면 확장성은 공동체가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제도·가치 체계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적 포괄성(structural inclusiveness)**을 포함한다.

이러한 확장성은 다음과 같은 인과 구조를 통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한다.

표 9. 확장성의 구조적 인과 메커니즘

단계	조건	작동 방식	결과
1	개방형 구조	외부 요소 유입 가능	다양성 증가
2	포괄적 수용	이질적 요소 통합	구조적 확장
3	관계 재구성	새로운 연결 형성	네트워크 강화
4	시스템 효과	적응력 증가	지속 가능성 확보

결과적으로 확장성은 공동체를 고정된 경계 안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재구성되는 구조로 전환시키는 핵심 원리이다.

6.2.2. 개방성: 참여 구조의 재구성

개방성은 공동체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참여 구조를 기반으로 작동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참여의 기준이 전통적인 출신, 국적, 민족적 정체성이 아니라, **관계 형성 능력과 공동체에 대한 기여 가능성**으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전통적 공동체에서는 소속이 정체성을 결정하고, 참여의 범위를 규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공동체에서는 소속보다 **참여(participation)**가 중심 원리로 작동한다. 이는 공동체를 고정된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구성하는 **관계적 장(relational field)**으로 전환시킨다.

개방성은 단순히 접근을 허용하는 상태가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이 실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문화적 조건**을 포함한다. 이러한 구조는 다음과 같은 인과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역동성을 강화한다.

표 10. 개방성의 구조적 인과 메커니즘

단계	요소	기능	결과
1	접근 가능성	다양한 참여자 유입	이질성 확대
2	참여 구조	관계 형성 촉진	상호작용 증가
3	협력 과정	공동 활동 형성	사회적 자본 축적
4	구조적 효과	네트워크 밀도 증가	공동체 활성화

이와 같이 개방성은 공동체를 정체성 중심 구조에서 **관계 중심 구조로 전환**시키는 핵심 원리로 작용한다.

6.2.3 유연성: 적응성과 구조적 가변성

유연성은 공동체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스스로를 조정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제도의 일부를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동체 구조 자체가 변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 경제 구조 변화, 글로벌 위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도로 불확실한 환경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고정된 규범과 제도에 의존하는 경직된 구조가 오히려 시스템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는 변화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변화를 전제로 설계된 구조(adaptive structure)**를 가져야 한다.

유연성은 다음과 같은 인과 구조를 통해 공동체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표 11. 유연성의 구조적 인과 메커니즘

단계	조건	작동 방식	결과
1	환경 변화	불확실성 증가	기존 구조 압박
2	적응 메커니즘	규범 · 제도 조정	구조 재구성
3	학습 과정	경험 축적 및 반영	대응 능력 향상
4	시스템 효과	회복력(resilience) 강화	지속 가능성 확보

결과적으로 유연성은 공동체가 외부 충격에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재구성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회복적 구조(resilient system)**를 형성하는 핵심 원리이다.

확장성, 개방성, 유연성은 각각 분리된 기능을 수행하는 개별 원리로 이해될 수 있으나, 실제 공동체 구조의 형성 과정에서는 이들이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세 가지 원리는 상호 결합과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통합된 구조적 논리를 형성하며, 그 결과로 공동체의 조직 방식과 작동 원리가 결정된다.

우선 확장성은 공동체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넓히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는 공동체가 특정한 경계에 고정되지 않고 외부와의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 가능성은 단순히 외부 요소의 유입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외부에서 유입된 다양한 요소들이 공동체 내부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개방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개방성은 공동체 내부의 구조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 즉, 확장성이 공동체의 범위를 넓히는 원리라면, 개방성은 그 내부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유연성은 이러한 확장과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기반을 제공한다. 공동체가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확장되고 내부적으로 다양한 상호작용이 증가할수록, 구조적 복잡성 또한 함께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복잡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규범이나 제도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변화에 따라 스스로를 조정할 수 있는 적응적 구조가 필요하다. 유연성은 바로 이러한 적응 가능성을 공동체 내부에 내재화함으로써,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든다.

결국 이 세 가지 원리는 순환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확장성은 새로운 관계의 유입을 가능하게 하고, 개방성은 그 관계들을 실제 상호작용으로 전환시키며, 유연성은 이러한 과정 전체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 속에서 공동체는 단순히 크기만 커지는 구조가 아니라, 점점 더 복잡적이고 정교한 네트워크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공동체는 더 이상 고정된 제도적 틀이나 단일한 중심에 의해 유지되는 구조가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확장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개방적으로 작동하고, 동시에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갖춘 네트워크형 사회 시스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공동체는 완성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구조적 재조정을 통해 끊임없이 생성되는 과정적 실체이다.

따라서 확장성, 개방성, 유연성은 단순한 이론적 개념이나 규범적 지향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실제로 작동 가능한 구조로 구현하기 위한 핵심 설계 원리로 기능한다. 이 원리들은 공동체가 현실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성과 역동성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조건이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공동체 이론이 추상적 담론을 넘어 실천 가능한 사회 모델로 전환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6.3 국가 역할의 재정의

새로운 공동체 구조 속에서 국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재정의된다. 즉, 국가는 더 이상 절대적 중심이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 안에서 하나의 구성 요소로 재배치된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기능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국가는 통제와 질서 유지의 중심 기관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새로운 공동체 구조에서는 이러한 역할이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

첫째, 국가는 **통제 기관에서 조정 기관으로 전환**된다. 이는 국가가 직접적인 지배와 통제보다는 다양한 행위자 간의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 국가는 **경계 유지에서 연결 촉진으로 변화**한다. 기존 국가 체제는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경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새로운 구조에서는 이러한 경계보다 상호 연결과 교류를 촉진하는 기능이 더 중요해진다.

셋째, 국가는 **독점 구조에서 협력 구조로 전환**된다. 즉, 권력과 정보의 독점적 집중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적 분산 구조 속에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가는 여전히 중요한 제도적 단위로 존재하지만, 더 이상 전체 시스템을 지배하는 중심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하나의 노드로 기능하게 된다. 이는 국가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기능적 재배치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공동체의 이론적 구조는 국가 중심의 위계적 질서를 넘어서는 분산적이고 네트워크 기반의 사회 시스템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구조는 확장성, 개방성, 유연성이라는 세 가지 원리를 기반으로 작동하며, 국가의 역할을 통제 중심에서 조정 중심으로 전환시킨다.

따라서 새로운 공동체는 기존 질서를 단순히 대체하는 모델이 아니라, 기존 구조를 포함하면서도 이를 상위 수준에서 재조직하는 복합적 시스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현대 세계가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통합 모델이며, 국가 이후(post-state) 시대의 이론적 기반을 형성한다.

7. 새로운 공동체의 사회적 합의

새로운 공동체 모델은 단순히 이론적 차원에서 구성된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사회 구조 전반의 재편을 요구하는 포괄적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정치, 경제, 문화라는 사회의 핵심 축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를 유발하며, 기존 국가 중심 질서의 작동 방식 자체를 재구성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새로운 공동체는 사회 제도의 부분적 개선이 아니라, 문명 수준에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7.1 정치적 합의

새로운 공동체 모델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정치 구조의 재편이다. 전통적인 근대 국가 체계는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단일한 주권 중심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구조는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복잡하고 다층적인 현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이에 비해 새로운 공동체 구조에서는 정치 시스템이 단일 중심에서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구조로 전환된다.

이는 특정 중심 권력이 전체를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 - 지역, 국가, 초국가적 네트워크, 시민 조직 등 - 가 동시에 상호작용하며 정책과 결정을 형성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권력이 하나의 중심에 집중되지 않고,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분산적으로 작동한다. 정치적 의사결정은 위계적 명령이 아니라 협력과 조정의 과정으로 이해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결과적으로 정치의 본질은 “지배”에서 “조정”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확장된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

7.2 경제적 함의

경제 구조 또한 새로운 공동체 모델 속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전통적인 경제 시스템은 자원의 희소성을 전제로 한 경쟁 중심 구조에 기반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가 핵심 가치로 작동하며, 시장은 경쟁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새로운 공동체 모델에서는 경제의 핵심 가치가 경쟁에서 협력으로 이동한다. 특히 정보화 사회와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물질적 자원의 제한성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대신 정보, 기술, 지식과 같은 비물질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은 소유를 통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와 확산을 통해 그 가치가 증가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변화는 플랫폼 경제, 공유 경제, 지식 기반 경제의 확산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경제 활동은 더 이상 개별 행위자의 독립적 경쟁이 아니라, 네트워크 기반 협력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의존적 과정으로 전환된다. 결과적으로 경제 시스템은 제로섬 경쟁 구조에서 벗어나,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비제로섬 구조로 이동하게 된다.

7.3 문화적 함의

문화 영역에서의 변화는 더욱 근본적인 수준에서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문화는 국가와 민족 단위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도구로 기능해 왔으며, 이는 문화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통합 모델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은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하나의 틀로 통합하려는 과정에서 배타성과 경직성을 내포하게 된다.

새로운 공동체 모델에서는 이러한 동질성 중심 문화 구조가 다양성 중심 구조로 전환된다. 문화는 더 이상 단일한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정체성들이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 열린 장으로 이해된다. 즉, 문화는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 간 경계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창조성을 촉진한다. 서로 다른 전통과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과 변형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형태를 생성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결과적으로 문화는 통합의 도구에서 창조의 플랫폼으로 전환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새로운 공동체 모델은 정치, 경제, 문화 전 영역에서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포괄적 사회 재구성 모델이다. 이 모델은 단일한 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질서들이 동시에 공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중 질서 구조를 지향한다.

이러한 구조는 현대 세계가 직면한 복잡성, 상호의존성, 그리고 다양성의 현실을 반영하는 필연적 진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공동체는 기존 국가 중심 질서를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면서도 초월하는 새로운 문명적 전환의 기반으로 자리매김한다.

참고문헌

1. Bauman, Z. (2000). *Liquid modernity*. Polity Press.
2. Beck, U.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Sage Publications.
3. Castells, M. (2010).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2nd ed.). Wiley-Blackwell.
4. Chua, A. (2007). *Day of empire: How hyperpowers rise to global dominance—and why they fall*. Doubleday.
5. Foucault, M. (1977).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Pantheon Books.
6. Giddens, A.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7. Glaeser, E. L. (2012). *Triumph of the city: How our greatest invention makes us richer, smarter, greener, healthier, and happier*. Penguin Press.
8. Habermas, J. (1996). *Between facts and norms: Contributions to a discourse theory of law and democracy*. MIT Press.
9. Heidegger, M. (1962). *Being and time*. Harper & Row.

10. Latour, B. (2005).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11. Marcuse, H. (1964). *One-dimensional man: Studies in the ideology of advanced industrial society*. Beacon Press.
12.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 Schuster.
14. Weber, M. (1978).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